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와의 관계

장 근 주*

본 연구는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하는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관계 규명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3, 4, 5, 6학년 남녀 341명(참여자163명, 비참여자178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법을 이용하였다. 자기효능감은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동적 영역을, 음악 학습동기는 긍정적 내적동기와 외적동기, 부정적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로 구분하였다.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이, 여학생이, 참여기간이 길고 학년이 낮을수록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가 높았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인지적, 사회정서적 그리고 심동적 영역은 모두 긍정적 내적, 외적동기에, 심동적 영역만이 부정적 내적, 외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보였다.

※ 주제어 : 음악 특기·적성교육, 자기효능감, 음악 학습동기

차 례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2. 학습동기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도구와 내용
3. 자료 분석

IV. 연구결과

1.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
2.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V. 논의 및 결론

* 전주교육대학교 음악교육과 겸임교수

I. 서론

특기·적성교육은 1999년부터 교육과정이 개정된 현재까지 더욱 다양하고 체계화된 학교 내의 교육이다. 특기·적성교육활동은 학습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인성과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것을 교육목표로 방과 후 희망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 스스로 개성과 소질을 신장시킬 수 있는 자율적인 교육환경 조성에 목적이 있다(조현희, 2009). 음악 특기·적성교육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지적, 인지적, 심동적 영역을 향상시켜 주고 소질과 적성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서적 지능을 높여주며 개성과 창의성을 자극하여 능력을 개발시켜 준다(우수미, 2010). 또한 음악을 통하여 자아실현의 가능성과 자신만의 감정을 자유롭게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음악활동을 통한 자기표현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력을 획득하고, 창조성과 다양한 사고능력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고, 음악경험의 상호관계를 지각하여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한다.

초등학교에서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관한 연구는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우수미, 2010; 최윤선, 2009)이나 지도방안(장은언, 2010; 조현희, 2009)의 두 종류의 연구로 나눌 수 있다. 운영 실태 조사에서는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현황을 지역에 따라 분석하고 문제점을 통하여 개선방향을, 지도방안은 특정한 악기연주에 대한 바람직한 학습지도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한 문제점으로는 일반 사교육과 비교하여 교수방법과 교육내용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연계성이 희박(장은언, 2010, pp. 94-95)하다는 점과 교육부에서 처음 내세운 특기 적성 교육의 취지와 목적이 흐려지고 있는 상황에 최근 교과보충학습까지 허용한 단계에서 특기·적성교육의 운영의 어려움(우수미, 2010, p.59)을 지적하였다. 이 외에 학부모와 학생들, 담당자들의 인식 부족으로 유능한 강사의 확보와 악기 및 용구구입이 어려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의미와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활동의 효과에 대한 경우는 단순히 실태조사를 통한 교육적 효과를 논하고 있어 참여한 학생들과 비참여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자기효능감은 현대 학습동기이론에서 가장 많은 주목을 받고 이론연구가 활발하며 현장적용도 가장 광범위한 이론이다(김아영, 2004, p.27). 렌(Ryan, 1982)은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동기와 태도에 영향을 주는 내적요인으로, 이는 학습자의 태도와 내적동기의 인지 및 정의적 요인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와 같이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는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어 국내에서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이숙자, 2010; 황인주, 2010; 추미애·박아청, 2006)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참가유무와 성별, 기간, 학년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계를 규명하여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음악적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즉, 음악 특기·적성교육 참여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형성하여 음악 학습동기를 높인다는 사실을 검증하여 초등학교에서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과 가치를 제시하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참가유무, 성별, 참가기간과 학년에 따라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자아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1) 자기효능감

반두라(Bandura, 1977)는 자기효능감을 특정 목표에 대한 성공적인 결

과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과 신념으로 정의하였다. 셉크(Schunk, 1985)는 학습자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여 새로운 인지기술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신념을 학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은 과제수행에서 나타나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으로 요약할 수 있다.

반두라는(1986)는 성취경험, 대리경험, 언어적 설득과, 정서적 대처 훈련을 자기효능감의 근원으로 주장하였다. 음악과 이를 연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성취경험에서 음악적 만족감은 경쟁보다는 성취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성공적인 음악적 경험은 자긍심 향상과 자기효능감에 지대한 역할을 한다. 둘째 대리경험에서 음악은 이중창이나 합창, 기악합주 또는 음악극을 만드는 공동 음악작업을 통하여 다른 공동 수행자나 그룹의 발표를 관찰하여 성취를 모방할 수 있다. 셋째, 음악실기의 평가는 주관적으로 긍정적인 피드백의 제공 즉 언어적 설득은 성취경험에 필요하다. 넷째는 가창을 포함한 음악연주의 무대 공포증으로 자신의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경우에 대처하는 정서적 대처 훈련이 필요하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학생들의 동기와 학습을 효과적으로 예측하는 요소로 등장하였다(Zimmerman, 2000, p.82). 한국에서의 자기효능감 연구는 1980년대 중반을 기점으로 90년대 초반부터 서서히 관심이 증가되어 95년부터 급증하였다(김아영, 2004). 연구된 분야는 교육심리, 교육공학, 사회체육과 음악 치료 등 다양한 분야이며 음악교육에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고 있다. 국내에서 음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 연구는 대부분이 특정 상황에 포함된 다른 변인들과의 관련성에 대한 것으로 주로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김보연, 2010; 정지혜 2009; 조수현, 2009; 신선영 2007, 오윤경 2006)과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황인주, 2010; 박지현, 2009; 서영인, 2004)에 대한 연구들이다.

2)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들

음악과 관련된 자기효능감의 연구는 주로 음악치료와 유아교육과 체육에서 연구되어졌다. 초기에는 한 가지의 변인 즉 특정한 음악활동을 독립변인으로 종속변인인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반복적인 성공경험의 음악줄넘기 운동이 중학교 여학생의 인지적 자기효능감과 신체적 자기효능감 향상에 효과가 있다(신선영, 2007)는 연구는 순수한 음악활동이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체육과 음악이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이다. 음악치료 연구는 주로 음악활동을 포함한 치료 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 증진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음악교육에서는 초등학교생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이나 특별한 교수방법 등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려고 하였다. 김보연(2010)은 2009년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 36명을 대상으로 음악영재교육은 영재아의 자기효능감과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박광선(2003)은 초등학교 1학년 34명을 대상으로 한 실험연구에서 음악활동이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과 자기효능감 향상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효과적인 방법임을 입증하였다. 오윤경(2005)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협동학습을 적용한 리코더 수업이 기악 수행평가, 학업성취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서 협동학습은 기악 수행평가와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음악이 협동을 통한 인성교육으로 학생들에게는 경쟁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패배감을 배제하고 성취경험을 통한 자기효능감의 향상을 불러일으킨다고 할 수 있다.

3)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변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다음은 음악적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여러 변인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형성하며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킨다는 연구들이다. 유아음악에서는 유아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과 교사변인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은 유아의 음악적 능력과 음악적 태도에

직접적인 영향(나혜선, 2007)을, 영아교사의 음악교육 지식에 대한 자기 인식과 음악교수 효능감은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에 영향을(황인주, 2010)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사자신의 노력에 의해 음악학습이 효과적으로 증진될 수 있다는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자신의 음악 교수능력에 대한 신념 및 인식보다 다소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방은영·박찬옥, 2005). 효능기대감(efficacy expectation)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신념을, 결과기대감(outcome expectation)은 어떤 행동이 어떤 결과를 수반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을 의미한다. 위의 연구 결과들은 자기효능감과 결과기대는 둘 다 동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지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결과는 주어진 상황에서 학습을 얼마나 수행할지의 판단에 있어 효능기대감 즉 자기효능감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반두라(1986)의 의견을 전제로 한다. 이는 개인이 자기 행동의 결과를 예측한다고 해도 행동수행에 대한 신념을 갖지 못하면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 효능기대와 동기는 밀접하게 관련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음악교육에서 조수현(2009)은 켈러(Keller)의 ARCS 전략을 적용한 음악수업이 학업성취도 및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박지현(2009)은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서 음악경험, 교사의 기대와 가정환경이 음악적 자기효능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며 학교에서의 음악경험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성공 경험에 의하여 증가된 자기효능감은 다른 상황에도 전이되어 다양하고 많은 성공경험을 한 개인은 보다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을 가질 것이라는 반두라(1997)의 주장을 입증한다.

2. 학습동기

동기의 어원은 ‘움직인다(to move)’라는 뜻의 라틴어 *movere*에서 변형되었다. 동기관 대체로 행동에 활력을 넣어주고 행동의 방향을 정해주는 것으로 정의된다(전미선, 2011). 학습에 있어 동기는 학습을 유도하며 학

습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음악 학습동기는 음악적 성취를 위하여 음악적 활동에 참여하고 지속하게 하는 학습자의 자세를 말한다.

학습동기는 크게 내적동기(intrinsic motivation)와 외적동기(extrinsic motivation)로 나눌 수 있다. 내적동기는 참여자체가 목표이고 외적동기는 참여가 목표를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작용하는 것을 뜻한다(구자연, 2010, p.9). 즉 내적동기는 외부로부터의 보상대신 개인의 순수한 흥미, 관심 혹은 자기만족감 등에서 비롯된 동기이다. 따라서 내적동기에 의존하는 활동은 그 자체가 보상으로 과제 자체와 수행에서 얻는 성취감을 즐긴다. 음악에서 외적인 보상에 지나치게 치중하면 흥미와 즐거움이 반감되고 참여자체를 즐길 수 없어 순수한 흥미와 즐거움에 의해 발생하는 내적동기의 발현이 중요하다. 내적동기는 음악적 기술과 연주방법을 배우면서 얻는 기쁨 때문에 참여하는 동기와 그 기술의 숙달이나 행함으로 오는 성취감과 만족감 때문에 행하는 성취동기, 그리고 음악에 참여하여 수행과정에서 오는 즐거움과 흥분 때문에 행하는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Deci와 Ryan은 (1985)은 외적동기를 외적규제(external regulation), 내적규제(internal regulation), 확인규제(identified regulation)로 분류하였다. 외적규제는 개인의 행동이 자신의 선택과 의지가 아닌 개인 외부의 보상이나 칭찬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음악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내적규제는 개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내재화하는 것으로 학생들이 시험이나 연주를 위해 연습 하는 거은 연주를 잘하지 않으면 창피를 당한다는 부담감으로 이는 내적규제에 해당한다. 확인규제는 수행 선택이 개인의 목표달성 때문에 일어나지만, 내적으로 규제되고 자기가 결정한다는 점이 내적동기와 구분된다.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활동이 대학진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참여하는 경우를 확인규제로 분류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선정은 비확률 표본추출법 중의 하나인 유목적적 표집방법(purposeful sampling method)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은 서울에서도 지역이 다른 초등학교 중 음악 특기·적성 교육이 관악기와 현악기를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는 사립초등학교 2곳과 공립초등학교 1곳을 선정하였다.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 190명과 참여하지 않은 학생 190명을 선정하여 총 380명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100%의 수거율을 보였다. 수거된 설문지에서 응답 내용이 누락되거나 부실 응답된 59부를 제외한 분석 대상자는 총 341명이고 연구대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의 특성

		참여유무		전체
		하고있다	하지않다	
성별	남자	58(17.0%)	109(32.0%)	167(49.0%)
	여자	105(30.8%)	69(20.2%)	174(51.0%)
전체		163(47.8%)	178(52.2%)	341(100.0%)
		참여유무		전체
		하고있다	하지않다	
학년	3학년	44(12.9%)	46(13.5%)	90(26.4%)
	4학년	44(12.9%)	42(12.3%)	86(25.2%)
	5학년	41(12.0%)	44(12.9%)	85(25.2%)
	6학년	34(10.0%)	46(13.5%)	80(23.5%)
전체		163(47.8%)	178(52.2%)	341(100.0%)

2. 연구도구와 내용

1) 설문지 구성

본 연구의 설문지 구성의 주요요인은 총 네 영역으로 인구통계학적 특

성, 음악 특기·적성교육 참여실태,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로 구성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배경변인으로 학년과 성별에 관하여,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대한 참여실태는 독립변인으로 참가유무와 참가기간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중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 측정을 위하여 Hillman(1986)의 아동의 자기 효능감 검사도구와 Wheeler와 Ladd(1982)의 동료 상호작용에 대한 자기효능감 척도를 참고로 작성한 우회정(1993)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12개의 설문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심동적영역의 측정은 Pajares(1996)가 개발하고 윤운성(1998)과 방희정(2005)등이 사용한 6개의 설문문항을 음악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음악 학습동기에 관한 설문은 Wessinger와 Bandalos(1995)가 개발하고 구자언(2011)이 사용한 설문문항을 재구성하였다. 구자언의 설문문항은 긍정적 내적동기와 외적동기는 각 각 8문항이나 음악에 맞게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내적동기는 7문항으로 긍정적 내적동기는 5문항으로 축소하여 총 26문항으로 재구성하였다.

우회정(1993)과 유남이(2008)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지적, 사회정서적과 신체적 영역으로, Chen(2004)은 인지적, 정서적과 동기적인 요소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정서적 영역은 포함하였으나 지적영역을 인지적영역으로, 신체적 영역은 음악활동 측정을 위하여 심동적 영역으로 전환하여 각 영역을 6문항으로 총 18문항의 질문지를 작성하였다. 모든 설문 문항은 음악 특기·적성교육 참여 실태 문항을 제외하고 측정결과의 객관성을 위하여 ‘매우 그렇다’ 5점,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으로 점수화하는 5단계 척도로 구성되었다. <표 2>는 설문지 구성과 내용을 나타낸다.

<표 2> 설문지의 구성 및 내용

구성변인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배경변인	인구통계학적 특성	학년, 성별	2
독립변인	음악 특기·적성 교육	참가유무, 참가기간	2
종속변인	자기효능감	인지적영역	6
		사회정서적 영역	6
		심동적영역	6
	음악 학습동기	긍정적 내적동기	7
		부정적 내적동기	10
		긍정적 외적동기	5
		부정적 외적동기	4
문항 수 합계			48

2) 설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

설문문항의 내용과 구조 타당도를 검증을 위하여 음악교육학박사 4명의 검토를 받았으며 그 문항들이 실제 교육상황과 부합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사 5명의 검토를 통해 수정, 보완 후에 최종적인 설문지를 완성하였다. 완성된 설문문항의 구조적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정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였다. <표 3>은 자기효능감 척도의, <표 4>는 학습동기 척도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분석결과 자기효능감의 경우 Cronbach's α 값이 .700~.801로, 음악 학습동기는 Cronbach's α 값이 .626~.892로 .60이상으로 구성타당도와 신뢰도에 부합된다.

<표 3> 자기효능감 척도의 하위영역별 신뢰도

자기효능감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인지적 영역	1,2,3,6,10,17	6	.807
사회정서적 영역	4,7,9,11,13,16	6	.700
심동적 영역	5,8,12,14,15,18	6	.788
전체		18	.801

<표 4> 음악 학습동기 하위영역별 신뢰도

음악 학습동기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내적동기	긍정적 내적동기	1, 3, 4, 10, 11, 12, 23	7	.892
	부정적 내적동기	5, 6, 7, 9, 18, 19, 22, 24, 25, 26	10	.799
외적동기	긍정적 외적동기	2, 13, 14, 15, 16	5	.626
	부정적 외적동기	8, 17, 20, 21	4	.627
전체			26	.823

3.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응답내용이 부실하거나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제외하고는 SPSS 13.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변인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여 표집집단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악 특기·적성 교육의 참가유무와 성별, 기간, 학년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와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Scheffe를 이용한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두 변인간의 상관관계(correlational relationship)을 분석하였고, 자기효능감이 학습동기를 예언하는 설명력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가운데 '입력' 방식의 통계방법을 사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참여에 따른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

1)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

<표 5>는 참여유무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나타내고 있다. 참가한 학생

들이 비참가한 학생들보다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심동적 영역에서는 참여한 학생들이($t=11.07$)이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악 학습동기는 참가한 학생들의 긍정적 내적동기($t=10.10$)가 외적동기($t=8.75$)보다 더 높았고,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의 부정적 내적동기($t=-8.12$)가 외적동기($t=-5.46$)보다 통계적으로 높았다.

<표 5> 참여유무에 따른 자아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

		참가유무	사례수	M(SD)	t-값
자기 효 능 감	인지적	참가	163	3.76(.64)	7.74***
		비참가	178	3.17(.77)	
	사회정서적	참가	163	3.90(.70)	8.05***
		비참가	178	3.25(.70)	
	심동적	참가	163	3.90(.88)	11.07***
		비참가	178	2.80(.94)	
음 악 학 습 동 기	긍정적 내적동기	참가	163	3.95(.74)	10.10***
		비참가	178	3.04(.90)	
	부정적 내적동기	참가	163	1.79(.70)	-8.12***
		비참가	178	2.44(.77)	
	긍정적 외적동기	참가	163	3.41(.89)	8.75***
		비참가	178	2.62(.76)	
	부정적 외적동기	참가	163	1.73(.64)	-5.46***
		비참가	178	2.15(.74)	

*** $p<.001$

2) 성별의 차이

<표 6>의 성별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동적 영역 모두에서 여학생이 높았으나 여학생의 심동적 영역이 남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았다($t=-6.403$). 음악 학습동기는 여학생들의 긍정적 내적동기($t=-6.524$)가 외적동기($t=-5.08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남학생들의 부정적 내적동기($t=6.178$)가 외적동기($t=5.209$)보다 높아 음악 특기·적성교육이 학생들의 음악학습 동기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6> 성별에 따른 자아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

		성별	사 례 수	M(SD)	t-값
자 아 효 능 감	인지적	남	167	3.34(.82)	-2.529*
		여	174	3.55(.71)	
	사회정서적	남	167	3.43(.80)	-2.792**
		여	174	3.68(.81)	
	심동적	남	167	2.97(1.03)	-6.403***
		여	174	3.67(.98)	
음 악 학 습 동 기	긍정적 내적동기	남	167	3.15(.97)	-6.524***
		여	174	3.78(.81)	
	부정적 내적동기	남	167	2.39(.82)	6.178***
		여	174	1.87(.71)	
	긍정적 외적동기	남	167	2.75(.97)	-5.082***
		여	174	3.24(.78)	
	부정적 외적동기	남	167	2.15(.76)	5.209***
		여	174	1.76(.63)	

* p<.05, ** p<.01, *** p<.001

3)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

<표 7>에서 참여기간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인 학생들보다 1년 이상인 학생들이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동적 영역에서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기간에 따른 음악 학습동기는 1년 이상인 학생들의 긍정적 내적동기($f=37.543$)가 외적동기($f=25.914$)보다 더 높게, 1년 이상인 학생들이 1년 미만인 학생들보다 부정적 내적동기($f=24.552$)가 낮았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M=2.00$)이 6개월 이하 참여한 학생($M=1.79$)보다 부정적 내적, 외적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음악에 관심과 흥미를 유발하기 위하여 적어도 1년 이상의 학습 기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표 7> 참여기간에 따른 자아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

		참여기간	사례수	M(SD)	F	Scheffe
자 아 효 능 감	인지적	I 받은적없다	178	3.17(.77)	21.069***	II III IV > I
		II 1-5개월	56	3.61(.66)		
		III 6개월-1년	26	3.81(.68)		
		IV 1년이상	81	3.85(.60)		
	사회 정서적	I 받은적없다	178	3.25(.78)	23.432***	II III IV > I
		II 1-5개월	56	3.77(.66)		
		III 6개월-1년	26	3.77(.64)		
		IV 1년이상	81	4.03(.73)		
	심동적	I 받은적없다	178	2.80(.94)	43.768***	II III IV > I
		II 1-5개월	56	3.67(.73)		
		III 6개월-1년	26	3.79(.69)		
		IV 1년이상	81	4.09(.99)		
음 악 학 습 동 기	긍정적 내적동기	I 받은적없다	178	3.04(.90)	37.543***	II III IV > I
		II 1-5개월	56	3.75(.77)		
		III 6개월-1년	26	3.79(.80)		
		IV 1년이상	81	4.14(.66)		
	부정적 내적동기	I 받은적없다	178	2.44(.77)	24.552***	I > II III IV
		II 1-5개월	56	1.92(.86)		
		III 6개월-1년	26	1.97(.70)		
		IV 1년이상	81	1.63(.53)		
	긍정적 외적동기	I 받은적없다	178	2.62(.76)	25.914***	II III IV > I
		II 1-5개월	56	3.31(1.03)		
		III 6개월-1년	26	3.43(.85)		
		IV 1년이상	81	3.47(.80)		
	부정적 외적동기	I 받은적없다	178	2.15(.74)	12.402***	I > II IV
		II 1-5개월	56	1.79(.68)		
		III 6개월-1년	26	2.00(.80)		
		IV 1년이상	81	1.61(.52)		

*** p<.001

4) 학년에 따른 차이

<표 8>의 학년에 따른 자기효능감을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동적 영역($f=4.019$)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5, 6학년의 내재적 동기는 3학년($M=3.61$)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이는 고학년이 되면서 주지과목을 중요시하는 하여 음악에 대한 관심이 떨어지며 3학년은 음악을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음악에 대한 흥미가 높아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학년에 따른 음악 학습동기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내적 동기($f=7.414$, $p<.001$), 부정적 내적동기($f=8.363$, $p<.001$)와 부정적 외적동기($f=6.753$, $p<.001$)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긍정적 외적동기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긍정적 내적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저히 낮아지고 부정적 외적동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정적 내적동기는 3학년에서 점점 높아져 5학년($M=2.37$)에서 가장 높아졌고 6학년($M=2.31$)에서는 다시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표 8> 학년별 자아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차이

		학년	사례수	M(SD)	F		
자 아 효 능 감	인지적	3학년	90	3.56(.69)	1.956		
		4학년	86	3.54(.74)			
		5학년	85	3.38(.79)			
		6학년	80	3.31(.85)			
	사회 정서적	3학년	90	3.57(.95)	2.120		
		4학년	86	3.67(.73)			
		5학년	85	3.38(.76)			
		6학년	80	3.64(.77)			
	심동적	3학년	90	3.61(.91)	4.019**	3 > 5, 6	
		4학년	86	3.39(.98)			
		5학년	85	3.14(1.24)			
		6학년	80	3.13(1.03)			
음 악 학 습 동 기	긍정적 내적동기	3학년	90	3.81(.94)	7.414***	3 > 5, 6	
		4학년	86	3.55(.87)			
		5학년	85	3.27(.94)			
		6학년	80	3.23(.92)			
	부정적 내적동기	3학년	90	1.86(.63)	8.363***	5, 6 > 3	
		4학년	86	2.00(.65)			
		5학년	85	2.37(1.01)			
		6학년	80	2.31(.79)			
	긍정적 외적동기	3학년	90	3.06(.87)	1.602		
		4학년	86	3.15(1.00)			
		5학년	85	2.91(.83)			
		6학년	80	2.88(.94)			
	부정적 외적동기	3학년	90	1.73(.70)	6.753***	4, 5 > 3 6 > 4	
		4학년	86	1.86(.62)			
		5학년	85	2.06(.80)			
		6학년	80	2.17(.69)			

** p<.01, *** p<.001

2. 음악 특기·적성교육 참여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1)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상관관계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를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의 상관관계에 대해 설명력 검증을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자기효능감을 독립변인으로 음악 학습동기를 종속변인으로 '입력' 방식을 이용하였다. 음악 특기 적성교육에 참여한 초등학교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 간의 관련정도를 <표 9>에 제시하였다. 첫째,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 인지적 영역은 사회정서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내적동기, 심동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외적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부정적 내적동기와 부정적 외적동기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둘째,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 사회정서적 영역은 긍정적 내적동기, 심동적 자기효능감, 긍정적 외적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부정적 내적동기와 부정적 외적동기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자기효능감의 하위 변인 중 심동적 영역은 긍정적 내적동기, 긍정적 외적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그리고 부정적 내적동기와 부정적 외적동기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음악 학습동기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내적동기는 긍정적 외적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부정적 내적동기와 부정적 외적동기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다섯째, 음악 학습동기의 하위변인 중 부정적 내적동기는 부정적 외적동기와 정적인 상관관계를, 긍정적 외적동기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섯째, 음악 학습동기의 하위변인 중 긍정적 외적동기는 부정적 외적동기와 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표 9>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 간의 상관관계

	1	2	3	4	5	6	7
1 인지적영역	1						
2 사회정서적영역	.670(**)	1					
3 심동적영역	.577(**)	.530(**)	1				
4 긍정적내적동기	.593(**)	.533(**)	.704(**)	1			
5 부정적내적동기	-.391(**)	-.389(**)	-.606(**)	-.681(**)	1		
6 긍정적외적동기	.463(**)	.441(**)	.549(**)	.656(**)	-.491(**)	1	
7 부정적외적동기	-.313(**)	-.246(**)	-.414(**)	-.470(**)	.695(**)	-.267(**)	1

** p<.01

2) 자아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표 10>에서 보는바와 같이 자기효능감에 대한 하위요인인 심동적($\beta=.158$), 인지적($\beta=.220$), 그리고 사회정서적($\beta=.111$)영역은 모두가 긍정적 내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설명력은 긍정적 내적동기 전체변량의 약 55.4%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하위요인인 심동적($\beta=-.606$)영역만이 부정적 내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설명력은 부정적 내적동기 전체변량의 약 36.7%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하위요인인 심동적($\beta=.393$), 인지적($\beta=.145$), 그리고 사회정서적($\beta=.135$)영역 모두가 긍정적 외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설명력은 긍정적 내적동기 전체변량의 약 34.3%를 설명해 주고 있다. 자기효능감에 대한 하위요인인 심동적($\beta=-.414$)영역만이 부정적 외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의 설명력은 부정적 외적동기 전체 변량의 약 17.1%를 설명해 주고 있다.

<표 10>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내적동기				
	B	β	t	sig
심동적	.461	.158	11.314***	.000
인지적	.269	.220	4.200***	.000
사회정서적	.128	.111	2.193*	.029
$R^2 = .554$ F = 139.759				
부정적 내적동기				
	B	β	t	sig
심동적	-.461	-.606	-14.011***	.000
$R^2 = .367$ F = 196.295				
긍정적 외적동기				
	B	β	t	sig
심동적	.338	.393	7.063	.000
인지적	.172	.145	2.288	.023
사회정서적	.152	.135	2.209	.028
$R^2 = .343$ F = 58.585				
부정적 외적동기				
	B	β	t	sig
심동적	-.282	-.414	-8.371	.000
$R^2 = .171$ F = 70.077				

* p<.05, *** p<.001

V. 논의 및 결론

1.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1) 참여유무에 따른 차이

참여유무에 따른 결과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능동적 내적, 외적동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하지 않은 학생

들이 부정적 내적, 외적동기가 높게 나타나 음악 특기·적성교육이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하여 음악수업의 학습동기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특별활동 시간의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박광선, 2003), 학교 외에 음악교육을 받은 경험의 유무에 따라 음악적성에 영향을 준다는(최혜영, 2009)의 연구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교육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만으로는 음악 특기 육성이 어렵기 때문에 음악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활용한 음악교육이 필요하다는 이론을 확립해준다.

2) 성별의 차이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자기효능감과 내적, 외적 음악학습 동기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론은 남학생은 수학이나 운동에서 높은 학습동기를, 여학생은 영어, 악기나 사회과 등에서 남학생보다 높은 학습동기를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이은주, 2000; Eccles et al., 1993)를 지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영재교육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없으며(김보연, 2010), 아츠 프로펠의 학습방법을 적용하여 자기효능감을 측정한 결과 자기조절 효능감에서 남녀 간에 큰 차이가 없으나, 과제난이도 선호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정지혜, 2009)는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효과적인 학습내용과 방법은 남학생의 음악 학습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적절한 교육적 지도방안이 강구된다.

3) 참여기간에 따른 차이

학생들은 참여기간에 따라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동적 영역에서는 모두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1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의 긍정적 내적동기가 외적동기보다 더 높았다. 1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이 1년 미만인 학생들보다 부정적 내적동기는 낮게, 6개월 이상 참여한 학생이 6개월 이하 참여한 학생보다 부정적 내적, 외적동기는 높게 나타나, 적어도 1년 이상의 음

악학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무용 특기·적성활동에 1년 미만 참여한 학생들보다는 1년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김인형(2006)의 연구와 음악교육을 받은 기간이 길수록 음악적 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혜영(200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이는 특정 활동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낮을 경우, 그 개인은 흥미를 잃거나 거부감이 생기며 그 활동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반두라(1986)의 자기효능감의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1년 이상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음악활동의 즐거움을 통하여 음악학습에 대한 내적동기가 발현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생들을 음악수업에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학습에 대한 지속적인 흥미와 관심을 갖도록 내적 보상에 의한 동기유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4) 학년에 따른 차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기효능감의 심동적 영역에서만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인지적, 사회정서적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5, 6학년의 내재적 동기는 3학년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였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긍정적 내적동기는 현저히 낮아지며 부정적 외적동기는 높아졌다. 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읽기와 음악에 대한 과제가치는 낮아지며(Eccles et al., 1993), 고학년에 갈수록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율이 떨어진다고(최윤선, 2009)는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고학년에 갈수록 음악 학습동기가 떨어지는 이유는 음악교육에 대한 중요성의 인식이 점차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무용 특기·적성교육에서도 저학년이 고학년에 비해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유남이, 2008) 고학년을 위한 참여 지도와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학년이 올라가도 긍정적 외적동기만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고학년들은 외부적인 요소보다는 내재적 동기에 의해 학습이 유발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에게 내적 즐거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기술의 향상이나 개인적 성취감 및 활동으로부터 기인되는 흥분과 같은 내

재적 요소들이며 보상이나 유니폼 및 사회적 승인과 같은 외적 요인은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다(Wankel & Pabich, 1982)는 점을 시사한다.

부정적 내적동기는 3학년에서 점점 높아져 5학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6학년에서 다시 낮아져 음악학습의 내용에 의하여 학생들의 흥미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학습자는 동기가 높을 때 좀 더 수업에 집중하고 자신감에 가득 차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음악 학습동기의 하락을 일반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이에 대응한 적절한 교육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위하여 학습자들의 학습 목적을 파악하고, 학습자가 수행할 가치를 느끼도록 음악수업을 설계하여, 음악에 흥미를 갖고 적극적으로 음악활동에 참여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참여정도에 따른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를 통해 형성된 자기효능감이 음악 학습동기에 미치는 영향 분석 결과, 심동적, 인지적, 그리고 사회정서적 영역은 모두가 긍정적 내적, 외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심동적 영역만이 부정적 내적, 외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과 관련된 활동에서 획득된 심동적 발달 즉 음악적 기술을 토대로 음악 학습동기가 높아진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음악적 자기효능감은 가창 및 기악 활동 등 이전의 음악적 경험에 영향을 받으며(박지현, 2009, p.155에서 재인용), 성공적인 음악 경험은 긍정적인 자기효능감의 형성과 음악 학습동기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음악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함양된 심동적 효능감 즉 음악적 효능감은 음악에 대한 자신감과 흥미를 높여 음악수업에 참여를 유발하나 이 부분의 경험이 부족한 학생들은 음악학습에 부정적인 학습동기가 형성되었다. 이에 심동적 자기효능감은 음악활동 전반에 걸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즉 학생들이 음악수업에서 음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 경우에는 적극적인 태도로, 낮을 경우에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2. 연구의 교육적 함의

음악 특기·적성교육은 정규 활동 외의 학생의 취미, 소질, 적성 계발 및 인성과 창의성 함양을 위해 학교의 시설과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교육함으로써 공교육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는 관점에서 본 연구 결과의 교육적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초등학교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과 음악 학습동기가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보다 월등히 높았다. 반면에 음악 영재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영재교육에서 성별이나 음악활동이 자기효능감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김보연, 2010)는 점은 이미 음악적인 기술과 기능을 습득한 후에는 음악 활동들이 자기효능감이나 음악 학습동기에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공교육에서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교육적 필요성과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다. 이는 또한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효능감과 내적 흥미를 갖추어 일생 동안 음악을 애호하고 생활의 일부분으로 누리며, 음악을 정서적 도구로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일반 음악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이러한 점에서 바람직한 음악학습을 위하여 동기유발의 중요한 요소인 자기효능감을 증진시키는 학습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둘째, 음악 과외 시간을 통해서는 자기효능감과 정서적 안정을 기대(서영인, 2004)할 수 없다는 연구와는 달리, 음악 특기·적성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은 참여기간에 따라 인지적, 사회정서적, 심동적 영역에서 모두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음악 특기·적성교육을 통하여 사교육비를 줄이고 공교육을 강화한다는 취지를 정당화해준다.

셋째, 1년 이상 참여한 학생들이 음악학습에 대한 내적동기가 높다는 결과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인 음악활동의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동기유발과 관련된 연구에서 바람직한 동기유형은 내적동기이며(문진, 2008), 내적동기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은 음악학습에 있어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가 표출될 수 있도록 조력한다는 점에서(오윤경, 2005), 내적동기는 학습자 스스로의 자기 주도적 학습을 일으키

는 가장 바람직한 학습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음악 특기·적성교육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음악에 대한 선호도를 형성하고 소질과 적성, 창의성을 계발하도록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음악 특기·적성교육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음악 학습동기 증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창의·인성 교육을 요구하며 비교과 교육활동은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에 음악 특기·적성교육이 정규 음악교육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인성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가 공교육에서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필요성을 정당화 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3.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후속 연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서울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표집대상을 전국의 초등학생과 중, 고등학생으로 확대하여 일반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이 연구를 통해 살펴본 결과, 학생들의 음악 특기·적성교육 참여기간, 성별과 학년에 따라 여러 가지 변화를 주어 지도하는 것이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고 즐겁게 음악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의 내적동기를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과 지도방법을 개발하여, 학생들이 음악과 함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 구자언 (2011). 체육활동 자율적 결정정도가 체육수업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보연 (2010). 음악영재교육이 영재아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2009 서울시 음악영재 장학생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 김아영 (2004).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 교육방법학회, 16(1), 1-39.
- 김인형 (2006). 무용 관련 특기·적성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아동들의 사회성과 자아효능감과의 관계.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8, 31-42.
- 나혜선 (2007). 가정변인과 유아교사변인이 유아의 음악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카톨릭대학교.
- 문진 (2008). 중학생의 신체적 자기효능감과 체육수업 내적동기와 체육실기 수행성취도와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광선 (2003). 음악활동이 초등학교 신입생의 적응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박지현 (2009). 음악적 자기효능감 형성에 있어 음악경험, 교사기재, 부모지지 및 음악환경의 역할 분석. 음악교육공학, 8, 153-167.
- 방은영·박찬욱 (2005). 유치원교사의 음악교수 효능감, 음악교육에 대한 태도, 음악교수의 실재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4(90), 3-19.
- 방희정 (2005). 미술과의 심리적 교육환경이 자기효능감과 흥미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서영인 (2004). 초등학생의 음악 과외, 자기 효능감 및 정서적 안녕감과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 서희영 (2007). 무용통합교육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초등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 신선영 (2007). 음악줄넘기 프로그램이 초등학생의 체력과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 오윤경 (2006). 협동학습을 통한 리코더 수업에 있어서의 자기효능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우수미 (2010). 초등학교 방과 후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실태 및 발전 방안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우희정 (1993). 아동의 자기효능감 발달에 대한 이론적 고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15-25.
- 유남이 (2008). 방과 후 무용 특기·적성교육이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윤운성 (1998). 자기효능감과 학업성취의 분석적 고찰. 교육학연구, 36.
- 이은주 (2000). 초등학생들의 학습동기의 변화. 한국초등교육학회지, 14(1), 47-66.
- 이숙자 (2010). 집단 미술치료가 초등학생의 학습동기와 학업적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 장은언 (2010). 초등학교 방과 후 특기·적성 음악수업을 위한 프로그램 연구. 음악교육연구, 38, 93-118.
- 전미선 (2011). ARCS 동기전략이 국악감상 학습의 동기유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 정지혜 (2009). 아츠 프로젝트를 적용한 초등음악 창작프로그램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음악교육연구, 37, 245-276.
- 조수현 (2009). Keller의 ARCS 전략을 적용한 음악 수업이 학업성취도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진주교육대학교.
- 조아라 (2008). 중학교 음악수업에서 협동학습을 통한 자기효능감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 조현희 (2009). 코다이 교수법을 적용한 바이올린 특기적성교육 학습지도안.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 추미애·박아청 (2006).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습동기의 학교적응간의 관계. 한국아동교육학회, 15(2), 271-288.
- 최운선 (2009). 초등학교 음악 특기·적성교육의 실태와 연구: 의정부 지역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 최혜영 (2009). 조기음악교육이 음악적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수도권 지역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황인주 (2010). 영아교사의 음악교육 지식에 대한 자기 인식, 음악교수 효
능감과 영아의 자발적 음악행동과의 관계. *육아지원연구*, 5(2),
91-115.
-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hen, G., Gully, S. & Eden, D. (2004). Genera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toward theoretical and empirical distinction between
correlated self-evaluations.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25, 373-395.
-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Eccles, J., Wigfield, A., & Schiefele, U. *Motivation to succeed*. In A.
Elsenberg (Ed.), New York: Wiley, 1998.
- Hillman, S. J. (1986). Measuring self-efficacy: preliminar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Pajares, F. (1996). Self-efficacy Beliefs in Academic Settings.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66, 543-578.
- Ryan, R.M. (1982). Control and information in the intrapersonal sphere;
An extension of cognitive evalua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 450-461.
- Schunk, D. H. (1985). Self-efficacy and classroom learning. *Psychology
in the Schools*, 22, 208-223.
- Wankel, L. M. & Pabich, P. (1982). *The minor sports experience:
Factor contributing to detracting from enjoyment*.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Alberta, Edmonton.

- Wheeler, V. A., & Ladd, G. W. (1982). Assesment of children's self-efficacy for social interactions with peers. *Developmental Psychology*, 18, 795-805.
- Zimmerman (2000). Self-efficacy: An essential motive to learn. *Contemporary Education Psychology*, 25, 82-91.

ABSTRACT

Relationship between Self-efficacy and Motivation for Elementary Students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um Music Activity

Gunjoo J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motivation related with extra-curriculum music activity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Utilizing a questionnaire method, it targeted 341 students in third, fourth, fifth and sixth grades(163 participants, 178 non-participants) except for materials responded frivolously among 390 girls in Seoul. Self-efficacy breaks down into three subordinate domains(cognitive, social-emotional and psycho-motor aspects) and learning motivation does four subordinate domains (positive internal motive, negative internal motive, positive external motive and negative external motive), so the following can be concluded through the data analysis.

First, it was demonstrated that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in extra-curriculum music activity were higher in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than other children who didn't.

Second, girls were higher in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than boys.

Third, third and fourth graders were higher in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than fifth and sixth graders. The lower a grade was, the higher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were.

Fourth, the children who participated for more than 1 year were higher in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than other children who didn't.

Fifth,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especially, had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toward student's cognitive, social-emotional, and psychomotor aspects. Therefore, this study shows that extra-curriculum music activity can positively affect elementary school students' self efficacy and motivation.

key words: self-efficacy, motivation, extra-curriculum music activity

투고일: 5월 31일, 심사(수정)일: 7월 5일(7월 20일), 게재 확정일: 8월 12일